

“市 지원 200억·자체 300억 마련 문화재단 기금 대폭 확충하겠다”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정책기획·연구 독자적 수행팀 신설

전문화전당 연계할 상설 협의 기구

보조사업 심의위·문화도서관·카페도

“광주문화재단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우선 200억 원 가량 지원해 주고, 자체 노력을 통해 남은 300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6일 공식 취임한 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대표이사실을 옮겼다. 기존의 널따란 대표이사실을 직원들에게 내주고 대신, 좁은 사무실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일하기가 편해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지원은 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팔걸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 대표를 재단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을 들어봤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시민 공개 PT를 거치는 등 의미가 있었지만 선임 과정에서 내정설 등이 오가기도 했다. 소감과 각오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창립 4년이 지난 재단은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선임 과정에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자면 ‘시장과 친하다는 것’만 가지고 대표이사 자질을 의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다. 겸손과 헌신의 자세로 시민, 문화예술인, 재단 직원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운영 방향과 재단의 청사진은?

▲재단의 비전을 ‘시민의 문화주체화~광주정신·문화의 허브’로 삼고, 이를 위해 3대 목표 5대 실천과제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 시민이 없는 문화,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문화는 이미 문화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다. 예술의 꽃밭은 함께 가꿔야 한다. 백인백색인 문화의 정글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바로 문화재단의 할 일이다. 정글은 순수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정글에 햇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게 해 과사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재단의 할 일이다. 시민 소통을 위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간에 문화도서관과 문화카페를 개설하겠다.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금 확충이 숙제로 남았다. 기금 확충 계획은?

▲광주문화재단의 기금 총원은 담보 상태다. 설립 당시 광주시 출연금에 소액 이자, 소액 기업기부에 의한 총원이 있었으나 3년간 기금 확충이 없었다시피 했다. 사실 기금 확보를 위한 전담 팀이 부재했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 사업도 없었다. 우선, 광주시의 기금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광주시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고, 장기 계획을 세워 300억원을 자체 확충하겠다.

-재단 추진 사업이 너무 많아 본래의 정책 개발 등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조직 개편과 사업 재편에 대한 생각은?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문화정책과 광주문화 지평을 어떻게 늘리고 확대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정책



개발이 최우선이 돼야하고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재단의 정체성을 굳히는 데 노력하고 광주문화지표조사, 광주문화백서 발간, 재단 중장기 로드맵을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만들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를 위해 보조·위탁사업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영효율화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월 말에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면 문화재단의 조직, 인사, 직무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거친 후에 정책기획 및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고 재단 미션에 맞는 기능적 개편을 추진하겠다. 또 문화전당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상설 협의 기구도 만들겠다.

-광주시와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광역단위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정책연구 및 개발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단은 정책기획 및 연구, 재원의 독립성(기금 확충 필요), 예산집행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 대표이사로서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견지하고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를 새롭게 거듭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

-현재 사무처장이 공석이다. 신임 사무처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생각은?

▲대표이사는 외부 활동과 기금 확충을 전담하고, 사무처장은 재단 살림을 잘해야 한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계를 잘 알고, 재단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맞춤형 사무처장’이 외야 한다.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간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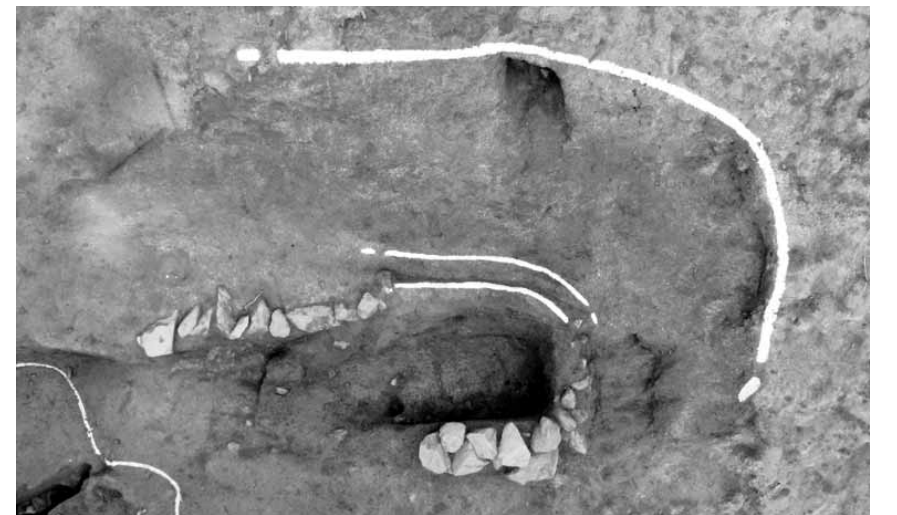
화순 쌍산 항일의병 무기 제작소 실체 확인

전남문예재단 내일 자문회의

전남문예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는 21일 오후 3시 사적 485호로 지정된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학술발굴 결과에 대한 자문회의를 발굴현장에서 진행한 다.

화순군 이양면 증리 증동마을 인근에 위치한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이하 쌍산의소)는 1900년대 초 의병들이 왜경에 대항해 전투를 준비하던 호남의병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호남창의소가 있던 곳으로 당시 호남 의병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쌍산의소는 한말 의병사에 빛나는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난 2007년 8월에 사적 485호로 지정됐다.

이번 학술발굴조사는 무기를 제작했던 대장간 터와 화약을 저장했던 유황굴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장간 터에서 철을 생산하는 제련로와 생산된 철을 직접 가공하는 단야(鐵冶)로 등 제



쌍산의소 제련로 모습.

철로 3기, 슬러그폐기장 4기 등이 확인됐다. 유황굴에서는 유황굴 2기, 수혈 5기 등이 조사됐다. 유물은 철기편, 제철로와 관련된 노벽, 슬러그, 목탄 등이 발견됐다.

김충경 전남문예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한말의병의 무

기제작소였던 쌍산의소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남지역의 조선말기 제련에서 단야까지 종합적인 철기 생산 공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9083-393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이의 시선으로 본 ‘ㄱ ㄴ ㅈ ㅊ...’

서향숙 ‘자음 모음 놀이’ 펴내

한글을 배웠던 어린 시절의 가슴 설레는 기억을 토대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소재로 동시집을 펴낸 이가 있어 화제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이자 광주교육대학교원 겸임교수인 서향숙 씨가 발간한 ‘자음 모음 놀이’(푸른 사상)는 아름다운 한글을 어린이의 감수성으로 흥미롭게 형상화한 작품집이다.

시인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뿐 아니라 영어 알파벳을 소재로도 말소리와 모양을 시로 구현해냈다.

“친구 집 담장에/ 팔 걸치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친구를 훑쳐보고 있다.// 담에 붙은 몸 강경 대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쫓을것 쫓을것/ 찰떡 같은 몸// 쿵

다콩 쿵다콩/ 좋아하는 맘.”(‘ㄱ(기역)’ 중)



시 ‘ㄱ(기역)’은 까치발 들고 담벼락에 붙어 그 너머로 좋아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화자인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과 한글과 연관된 자연과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시인은 “동시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한글 사용의 필요성과 한글의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우수성을 느꼈으면 한다”고 발간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양역사에서 보이는 여성과 가족



광주여성재단 21일 인문학 강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인문학 강좌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 10월 행사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10월 강좌에서는 최혜영(전남대

사학과·사진) 교수가 ‘서양역사에서 보이는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서양 여성과 가족의 변천사를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삶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 서양여성의 삶과 가족을 둘러싼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문의 062-670-054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김형중 교수 추천 브라질 영화 ‘마꾸나이마’

광주극장, 23일 명화 읽기

지역 문화 인사들과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광주시네마테크와 함께 하는 명화 읽기’ 10월 행사가 열린다.

23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문학 평론가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가 추천한 조아킴 페드로 데 안드라데 감독의 브라질 영화 ‘마꾸나이마’(1969)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의 주인공은 중년 흑인 남자로 태어난 마꾸나이마. 마리화나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백인 왕자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도시로 향하고, 온천물에 몸을 담그자 완전히 잘 생긴 백인 왕자가 된다.

도시로 나온 마꾸나이마는 테러리스트 여자와 살면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초현실주의, 코미디, 카니발리즘 등이 버무려진 작품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	--